

---

저자 (Authors)	변미혜
출처 (Source)	국악교육 14, 1996.10, 50-78(29 pages) <a href="#">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14</a> , 1996.10, 50-78(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국악교육학회</a> Society For Korean Music Educator's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9906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99064</a>
APA Style	변미혜 (1996). 정간보의 기보체계에 관한 연구. 국악교육, 14, 50-78
이용정보 (Accessed)	한국학중앙연구원 223.194.62.*** 2020/05/07 11:4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정간보의 기보체계에 관한 연구\*

변 미 혜

(한국교원대학교 예술계열 음악교육과)

차	례
I. 머리말	《삼죽금보》《하버드大 소장 금보》
II. 古樂譜에 나타난 정간보의 기보체계 《세종실록》《시용향악보》 《세조실록》《금합자보》 《대악후보》《양금신보》	《금은금보》《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 III. 현행 국악보의 정간보 기보체계 IV. 맺음말 참고문헌

### I. 머리말

우리나라 음악을 기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보법의 종류가 있다. 그 중 활용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보법 중 하나가 정간보이다. 정간보의 특징은 음의 시간량을 그 음이 기보되는 면적의 공간량으로 바꾸어 적음으로써, 음의 시간량과 악보의 공간량이 일치한다는 합리성이 있을 뿐 아니라 따로 음의 시가를 나타내는 기호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sup>1)</sup> 이러한 정간보의 출현은 우리나라 음악사에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간보의 기보체계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기보법을 동반하여야만 완벽한 기보체계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보법들을 어떻게 정간 안에 기보하며, 정간보를 이루는 행과 간을 어떤 체계방식으로 기보하느냐에 따라 음의 시가 및 곡의 흐름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1995년 연구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 이보형, “한국 민속음악장단의 대강박, 박, 분박에 대한 전통 기보론적 고찰”, 「국악원 논문집」 제4집 (서울: 국립국악원, 1992), p. 24.

구하고 정간보에 관한 연구는 한 정간 안의 면적을 어떻게 분할하여 쓰는가만을 국악 개론서 등에 소개할 뿐이고, 선율선을 나타내어 주는 기보법들의 해독, 해독에 의한 악곡 선율 분석 및 변천을 밝히려는데 기보법 연구의 초점이 이루어져 있었다.

최근 기보체계를 갖지 못했던 민속음악의 기보체계를 위한 전통기보론적 고찰이 대두되면서 정간보 기보체계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현행 정악곡들이 실려 있는 정간보 기보체계에 대하여 전통적이며 정통성을 지닌 기보체제인가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쓰기법 체계는 문자나 상징기호들의 기보체제와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가로쓰기법을 채택하면서 전통적 지식을 해독하는데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악보의 기보체제일 것이다.

현행 정간보의 기보체제가 전통적 기보체계 방법을 따랐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의 음악을 정확하게 해독할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논리적이던 체계법을 지녔던 기보체계마저도 무너뜨릴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6차 교육과정의 실시되면서 학교교육에서 우리의 기보법 중 정간보 기보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정악곡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장구장단을 지도시에는 전 장르에 걸쳐 가로쓰기의 기보체제로 정간보를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로쓰기의 기보체계도 어떤 논리체계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음악의 대부분이 민속악이다 보면, 정간보 기보체계도 갖지 못했던 민속악의 기보체계도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므로 전통기보법의 하나인 정간보가 출현했던 시기인 조선시대 세종실록 악보를 중심으로 하여 어떤 기보체계를 가졌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필요성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간보 기보체계의 올바른 이해와 더 나아가 바른 음악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으로는 조선 초기에 출현했던 세종대왕 장헌실록의 악보의 정간보 고찰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시대의 정간보로 사용된 악보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조선시대의 정간보의 기보체계를 밝히려 하며, 또한 1930년대 이후에 정간보를 사용한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 및 현행 악보들을 통하여 그 기보체계를 고찰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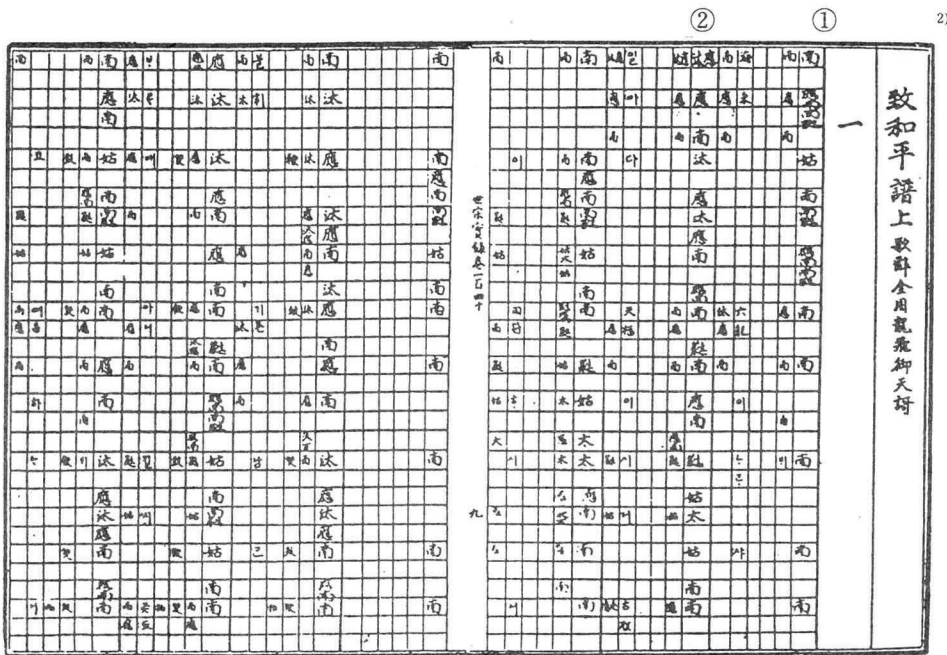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현재 사용되는 정간보의 기보체계의 문제점 및 보편 교육에서의 활용과 효율을 위한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II. 古樂潛에 나타난 정간보의 기보체계

현재까지 발견된 고악보는 수십종에 이르나 그를 다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정간의 의미를 지닌 악보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고찰의 내용은 행(行), 간(間)의 쓰기법 및 공간화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1. 《세종실록》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악보 1〉



정간을 처음 소개한 세종실록 악보이다.

위의 악보를 살펴 보면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보법으로 율자보를 쓰고 있으며, 여러 행에 여러 악기선을 및 장고장단, 가사를 적고 있는 총보(모음악보)로 되어 있다.

글씨 쓰기법은 세로쓰기법(위에서 아래로 적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세종·세조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0집 (서울:국립국악원, 1986), p. 88.

악보의 정간보 문자 표기법 즉 기보법은 세로쓰기법(위에서 아래로 적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정간의 행 표기법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행을 그어 쓰고 있다.

정간보의 간 기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1행을 32정간으로 나누어 쓰고 있다.

둘째 : 음의 시가가 한박 이상일 경우는 간의 수량을 그 시가량에 따라 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 음의 시가가 한 박인 경우는 한 간을 원칙으로 쓰고 있다.

넷째 : 음의 시가가 한 박에 못 미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보인다.

그 하나는 두 음 이상이 한 정간에 나오는 경우로 그것을 기보로 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악보 1-①〉



〈악보 1-②〉



〈악보 2-③〉



〈악보 1-①, ②〉에서 보면 한 악보에서도 한 공간을 두 음으로 나눌 때 두 가지 표기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단지 한 공간을 위·아래로, 우·좌로 나누어 쓰고 있음만 알 수 있다. 〈악보 2-③〉의 경우는 한 음을 작게 씌으로써 태를 꾸미는 역할로 기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도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의 경우는 세 음이 한 정간에 나타나는 경우로 세종실록 악보에서 한 가지 기보체계를 이루고 있다.

〈악보 3-④〉



위에서 아래로 세로쓰기법을 쓰고 있다.

〈악보 2〉

3)

③

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四十二

致和平譜下

三

〈악보 3〉

4)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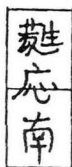
世宗大王實錄卷第一百四十一

致和平譜中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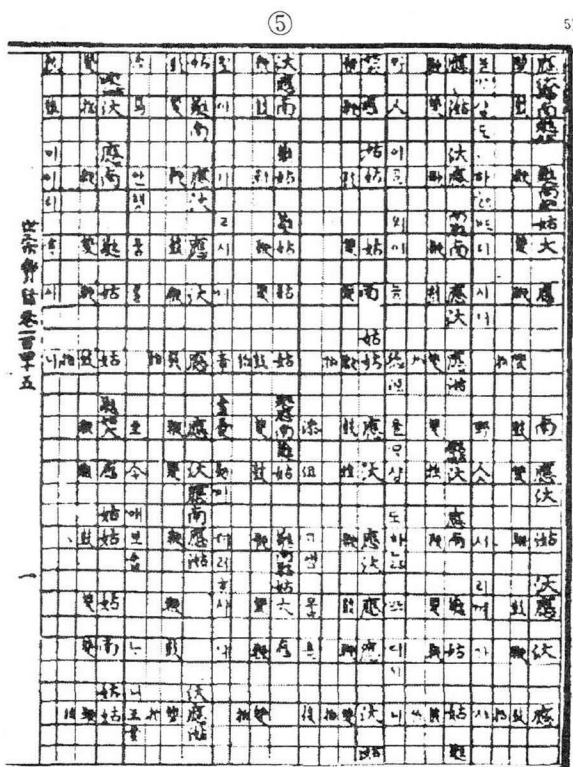
- 3) 「세종·세조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0집 (서울: 국립국악원, 1964), p. 130.  
 4) 「세종·세조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0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6), p. 109.

〈악보 4-⑤〉



정간에 세 음이 나오는 경우로 두 간에 세 음을 위 아래로 나누어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악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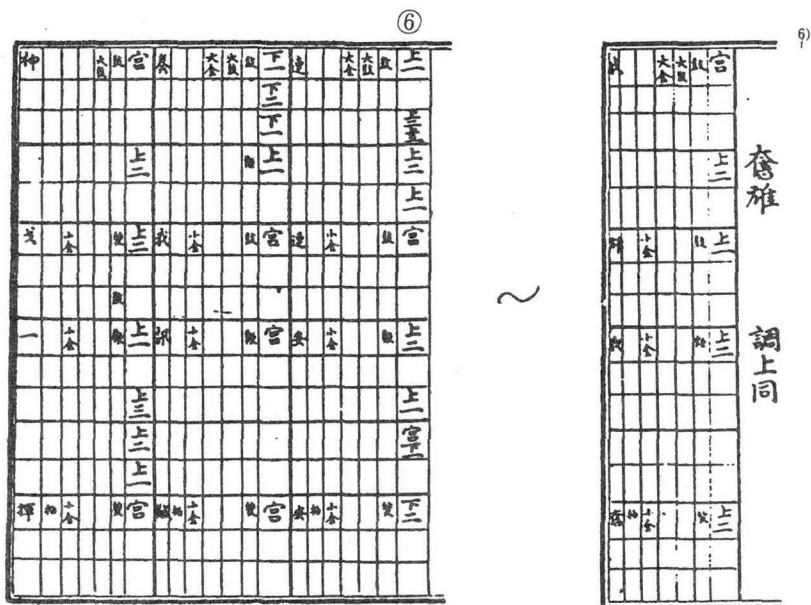
〈악보 1, 2, 3, 4〉에 나타난 세종실록 소재의 정간보의 기보체제는 다음과 같다.

음의 시가량에 따라 공간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며, 위에서 아래로 공간을 나누어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 악곡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 간의 공간도 위에서 아래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누어 씌울 수 있다. 현행과 같이 한 간의 면적을 등분하는 표시는 없고 다만 음만 나열하고 있다.

5) 「세종·세조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0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86), p. 175.

## 2. 《세조실록》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 〈악보 5〉



위의 악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실록》 악보와 같이 글씨 쓰기법은 세로쓰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보법으로 오음악보를 쓰고 있으며, 여러 행에 여러 악기선을 몇 장고장단, 가사를 적고 있는 총보(모음악보)로 되어 있다.

악보 기보체계에 있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는 세로쓰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행을 쓰는 경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 쓰는 점이 같다. 또한 한 정간을 한 박 단위로 하고 있으며, 한 박 이상일 경우 음의 시가량에 따라 정간량을 확보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1행을 16井間으로 나누고 있으며, 6대강을 그어 좀 더 음악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다. 대강의 시작을 달리함으로써 음악의 느리고 빠름을 나타내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세조실록》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는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세종실록》과 같이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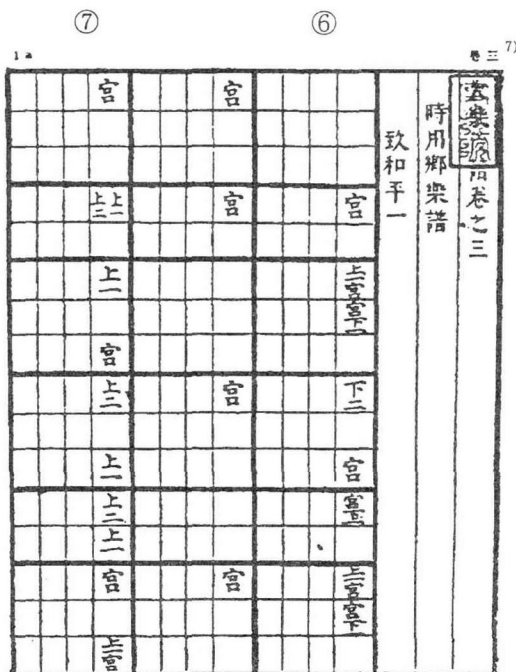
6) 「세종·세조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0집 (서울:국립국악원, 1986), pp. 241-242.



원칙은 같다. 한 정간에 두 음을 기보하는 방법도 <악보 5-⑥>에서처럼 세로쓰기만 채택하고 있으며, 세종 악보의 <악보 1-②>, <악보 2-③>과 같은 예는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 정간에 세 음을 나타내는 곡이 없는 점과, 두 정간에 세 음을 나타내는 곡도 없다.

### 3. 《대악후보》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악보 6>



<악보 6>, <악보 7>을 살펴 보면 《세조실록》 악보와 같이 글씨 쓰기법은 세로쓰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높이를 나타내는 기보법으로는 율자보와 오음약보를 사용하고 있다. 1행은 16井間으로 나누고 있으며 여섯대강을 나누고 있다. 또한 여러 행에 여러 악기선율 및 장고장단, 가사를 적고 있는 총보(모음악보)로 되어 있다. 악보 기보체계에 있어 《세조실록》보다 《세종실록》에 보였던 기보체계가 다시 나타나고 있음

7) 「대악후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79), p. 75.

<악보 7>

⑧

卷二

8)

卷二

第五變一篇

太祖駐師威化島家像教日

水不漲及旋師登岸水即太

至全島整沒

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정간에 두 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세로쓰기와 가로쓰기(우→좌)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악보 6 → ⑥, ⑦>

또한 세 음을 두 정간에 걸쳐 세로쓰기로 기보하는 예는 <악보 7-⑧>에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실록》에서 보여준 한 정간에 세 음을 기보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악후보》에서는 한 정간에 네 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공간을 나누어 적고 있다. <악보 8-⑨>

8) 「대악후보」, 한국국립국악원 자료총서 제1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79), p. 61.

(9)

38
四七

	雙	宮		飛	宮			上			宮
								上			
								上			
		宮			宮			宮			宮
		上	宮		下	五		宮			宮
		上	二		宮					宮	上
		上	二								上
		上	二		下			下			上
		上	二		宮	上		宮	上		
					上	上		上	上		
		宮			宮			宮			上
					宮	上		宮	上		
		下	五		上			上			上
		宮			上	宮		上	宮		上
					宮	上		宮	上		上

54

(10)

55

四八

動動

餘音升已餘音開耳而調

9) 「대악후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집 (서울 : 국립국악원), p.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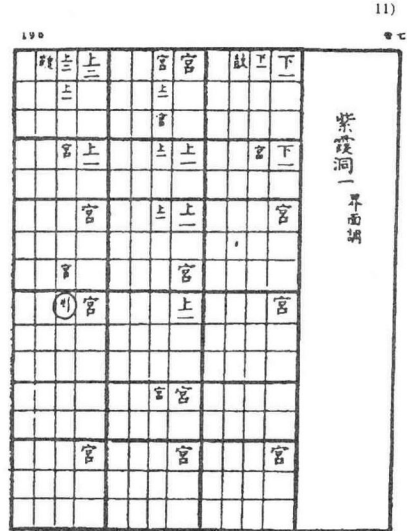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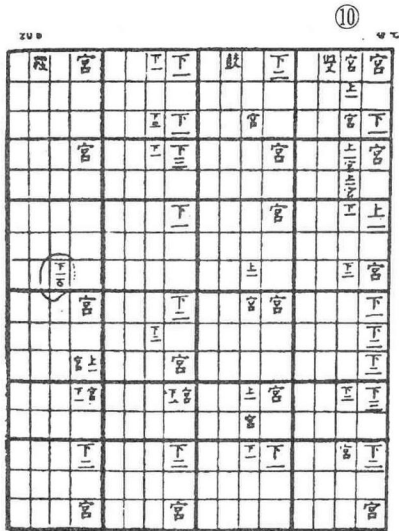
- |             |     |     |
|-------------|-----|-----|
| (예를 들면, 品六, | 參吏  | 壇壇) |
|             | 議曹, | 下上  |
|             |     | 五五  |
|             |     | 品品  |

(예를 들면, 署雅 各吏 등등)

樂，三曹  
郎，

(세종실록 권 128, 27, 28 오례의)

〈악보 9〉



두 정간에 네 음이 나타나는 예로 〈악보 9-⑩〉을 들 수 있다. 두 정간에 네 음이 걸쳐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정간보 기보 악곡에서 찾기 힘들다. 현행과 같이 한 간의 면적을 등분할하는 표시는 없고 다만 음만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시용향악보》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시용향악보》에 실린 정석가의 기보체계를 살펴 보면 《세조실록》 악보, 《대악후보》와 같이 1행이 16井間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섯으로 대강을 질러 사용한다. 오음악보를 사용하며, 악기선율보, 장고장단보, 박보, 가사 등을 적은 총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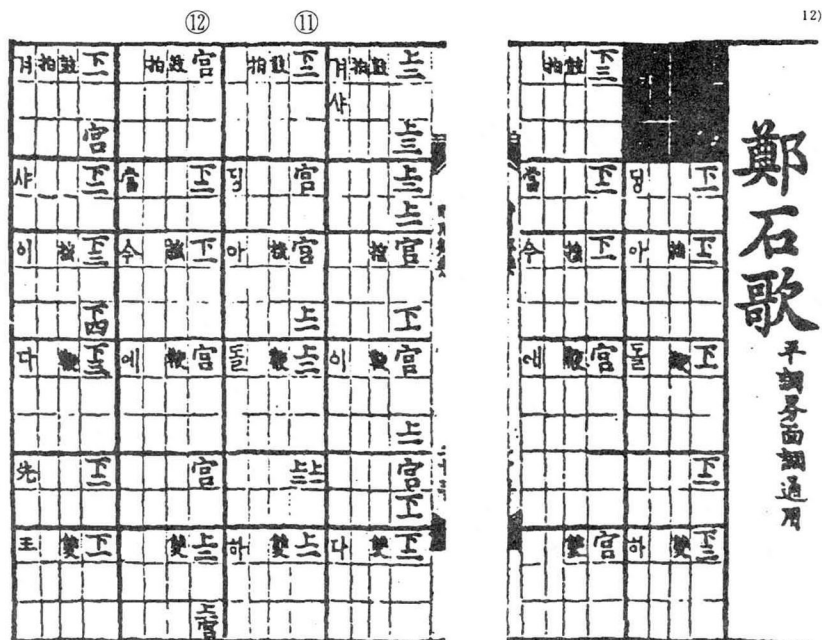
아래의 기보체계도 세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 씌울 수 있다.

〈악보 10-⑩, ⑪〉과 같이 한 정간에 두 음을 기보할 경우 우좌로, 상하로 기보함을 알 수 있다.

한 정간 안이나 두 정간 안에 세 음 이상 표기되는 경우는 없다.

11) 「대악후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집 (서울: 국립국악원, 1979), p. 200.

〈악보 10〉



5. 《금합자보》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악보 11〉에서 알 수 있듯이 《금합자보》의 기보체계는 《세조실록》, 《대악후보》, 《시용향악보》와 같이 1행이 16井間으로 되어 있으며 6대강보이다. 정간 안에 그림악보(북, 장고의 도면) 특히 장고의 연주법과 동시에 장단가락을 표현하고 있어, 교육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정간보 안에 사용된 기보법 또한 오음악보나 율자보에 그치지 않고 합자보, 육보, 적보 등 자세히 적고 있어 한 악곡의 악기편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국악교수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악보이다.

기보체계의 원칙은 앞 시대의 악보의 기보체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한 정간 안에 두 음이 나오는 경우는 《세종실록》, 《대악후보》, 《시용향악보》와 같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 〈악보 11-⑬, 악보 11-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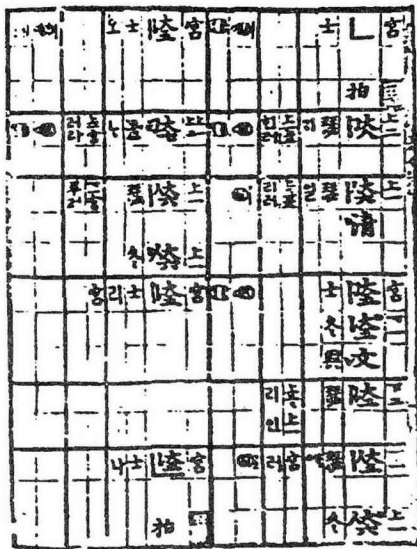
한 정간 안에 세 음이 나오는 경우는 〈악보 11-⑮〉와 같이 세로쓰기 (위, 아래)로 기보하였다.

12) 「시용향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2집 (서울 : 국립국악원, 1987), p. 81.

<악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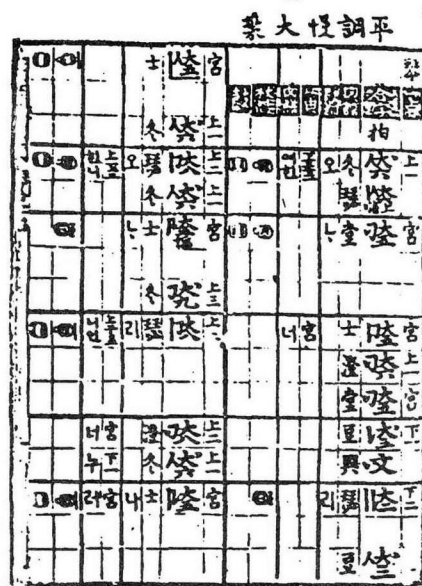
⑭

⑬



⑮

13)



6. 《양금신보》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악보 12>

⑰

⑯



13) 「금합자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2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7), p. 34.

14) 「양금신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4집 (서울: 국립국악원, 1984), p. 80.

《양금신보》 소재 악곡들 중 정간보에 기보된 복전을 통하여 살펴 보면 1행을 8정간으로 나누고 있으며 3대강보로 되어 있다. 기보체계는 합자보와 육보로 세로쓰기를 하고 있으며, 행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2-⑬〉에서 보듯이 한 정간에 두 음이 나오는 경우 그 옆에 쓰여진 육보와 비교하여 해독하면 두 음은 분명 동시가로 나누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이 칸을 나누지 않고 두 음을 그냥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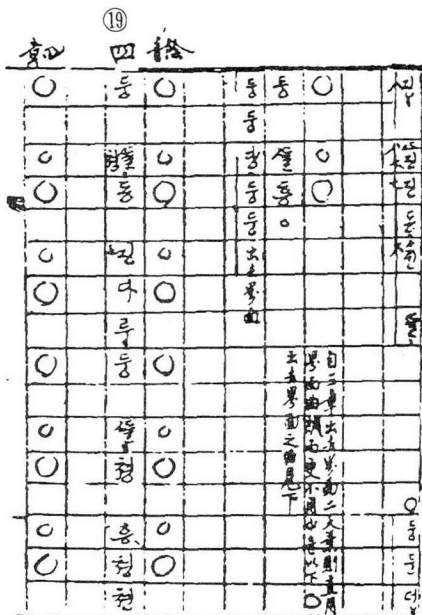
이러한 기보법은 전시대의 악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악보 12-⑭〉은 한 정간 안에 세 음을 위아래로 기보하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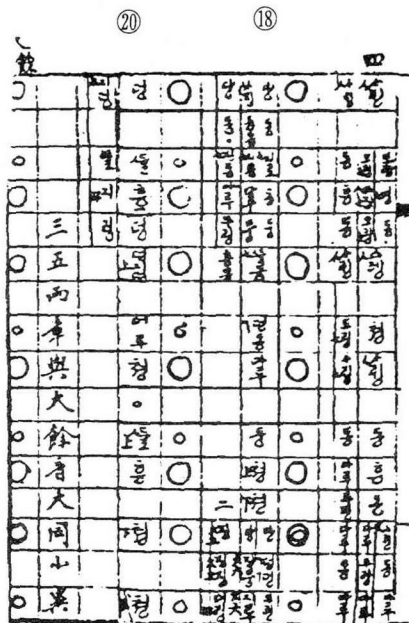


## 7. 《삼죽금보》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악보 13〉 우룡의 종여음



〈악보 14〉 우조의 조림중



15) 「삼죽금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집 (서울:국립국악원, 1980), p. 79.

16) 상계서, p. 75.

정간보의 기보체계는 1行을 모두 16井間으로 나누었으나 대강을 긋고 있지 않다. 육보를 사용하며, 장고장단도 표시하였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는 세로쓰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행을 그어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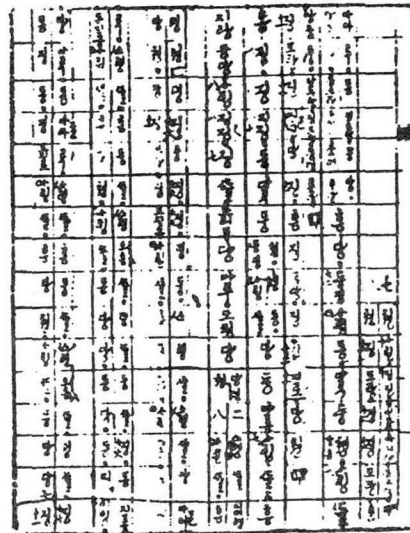
삼죽금보의 다른 악곡에서는 한 정간이 한 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가곡의 경우는 한 박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해당되는 악곡 중 두 악보<악보 13, 14>를 살펴보면 <악보 14-⑱>의 경우처럼 한 정간에 두 음이 나올 경우 위아래 즉 세로쓰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악보 13-⑲>의 경우는 우좌로 두 음을 가로쓰기로 기보하였다.

<악보 13-⑲>의 경우는 오음악보나 율자보가 아니고 육보로 되어 있으며, 쓸의 용법이 청 다음에는 나올 수 없으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말기에 해당되는 이 악보를 통하여 세로쓰기법과 우좌(행, 간)로 쓰는 기보법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정간에 세 음이 나오는 경우는 <악보 14-⑳>에 해당하는데 모두 세로쓰기를 하고 있다.

한 정간에 네 음이 나오는 경우는 <악보 15-㉑>에 해당하는데 두 줄로 나누어 기보하지 않고 세로로 네 음을 모두 기보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양금신보>에서도 언급했듯이 육보가 있으므로 육보가 갖는 음의 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 정간을 덩덩으로 쓴 경우와 더덩으로 쓴 경우, 덩더로 쓴 경우 두 음의 길이가 달라진다고 본다. 이렇게 시가가 다른 두 음을 한 정간에 같이 써도 알 수 있었던 이 유가 있거나 없었나 생각해 본다. 또 한 가지 가정해 본다면, 한 박안에서의 음들을 처리할 때 등분할이든 자유분할이든 그 융통성이 연주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17)

8. 《하버드大 소장 금보》 소재 정간보의 기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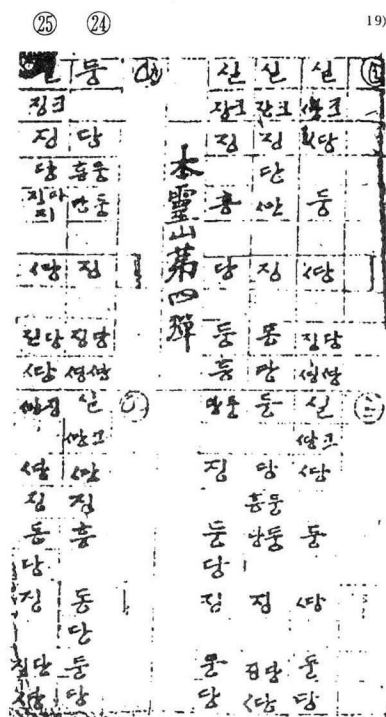
18)

17) 「삼죽금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집 (서울:국립국악원, 1980), p. 57.

18) 「하버드大 소장 금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7집 (서울:국립국악원, 1985), p. 157.

한 정간 안에 두 음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 보면 <악보 16-㉔>와 <악보 16-㉕>에 해당되는데 기보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는데, 《세종실록악보》에서처럼 사선으로 글씨를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17〉



19) 「금은금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8집 (서울:국립국악원, 1985), p. 110.

〈악보 17-㉔〉에서 보듯이 한 박안에 두 음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징다  
지

1940년대 경에 제작된 악보로 현행 국악보의 맥을 잇는 악보로서, 현행 정간보 기보체제와의 관련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악보이다. 이 중 비교적 가락이 복잡한 필름보의 정간기보체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illegible]

- 67 -

〈악보 18-2〉 중영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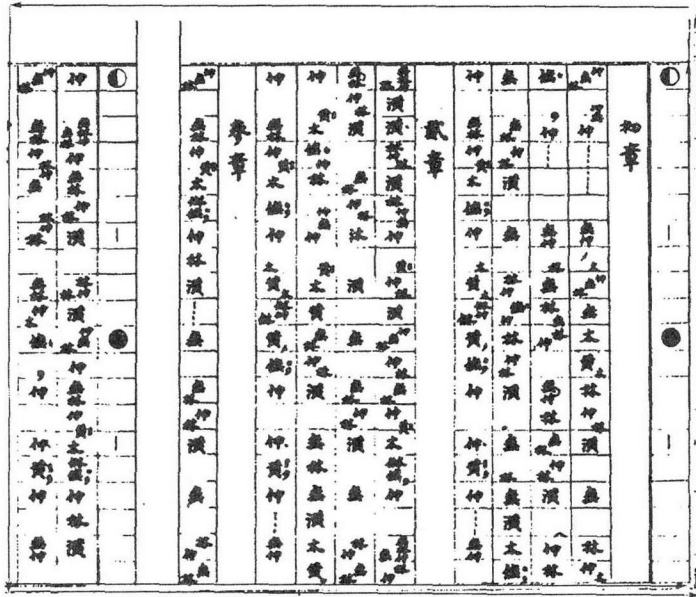
③③

③④

③②

③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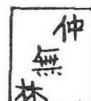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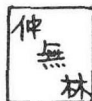
〈악보 18〉 중광지곡 중 상영산, 중영산의 경우 현행과 같이 1행을 20정간으로 나누고 있으며, 장고장단도 현행과 같다.

기보체계를 크게 보면 우선 세로쓰기법(위에서 아래로 쓰기)을 채택하였고 행의 구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서 쓰고 있다.

그러나 한 정간 안의 순서는 세로쓰기를 한 경우와, 빗겨쓰기를 한 경우, 행을 나누어 쓴 경우 이렇게 크게 나뉘어진다. 세로쓰기를 한 경우는 한 정간에 두 음을 쓴 경우 혹은 세 음을 쓴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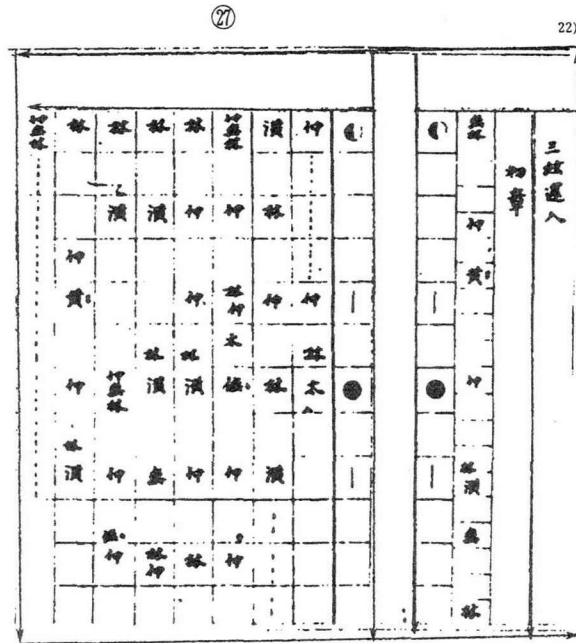
〈악보 18-②⑥〉, 〈악보 19-②⑦〉에 해당된다.

빗겨쓰기의 경우를 살펴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음을 써나가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보한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18-②⑧〉, 〈악보 18-②⑨〉이다.



21)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5집 (서울:국립국악원, 1988), p. 134.

〈악보 19〉



이제까지 정간보의 행과 간이 움직여지는 기보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정간 안에 행을 나누어 쓰는 경우도 오른쪽 행 다음에 왼쪽 행을 쓰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보 18-30〉처럼 왼쪽 행을 쓴 다음 오른쪽 행을 쓰는 기보 체계도 생긴 것이다.

〈악보 18-29〉



〈악보 18-30〉



한 정간에 네 음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악보 1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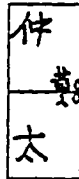
〈악보 18-32〉



22)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5집, p. 135.

고악보에서는 한 정간에 다섯 음이상 <악보 18-㉔>에서 처음 나오는 경우다.  
두 정간에 세 음이 나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악보 18-㉔>



이외에 조그마한 글씨로 정간과 정간사이에 적는 기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한 정간의 면적을 정확하게 등분할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III. 현행 국악보의 정간보 기보체계

현행 정간보의 기보체계에 대한 설명은 국악개론서들<sup>23)</sup>에 기보법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악개론서들에 적혀 있는 정간보의 기보법 및 독보법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현행 정악보들 중 <피리구름 정악보><sup>24)</sup>에 기보된 정간보의 기보체계를 살펴 보고, 바로 전 시대의 악보인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피리구름 정악보>에 실린 악곡 중 영산회상의 상영산, 중영산의 일부 악보를 보면 행의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 쓰고 있으며, 간의 구분도 위에서 아래로 쓰는 세로쓰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정간의 음의 나열은 세로쓰기법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보하는 가로쓰기법을 쓰고 있다.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인 경우는 가로쓰기법을 쓰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두 가지 기보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 정간보의

23) 김기수, 「국악입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2).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5).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국악교육총서 5 (서울: 한국국악교육학회, 1990).

24) 김태섭 외, 「피리구름 정악보」 (서울: 은하출판사, 1983).

〈악보 20〉 상영산의 일부

25) 김태섭 외, 「피리구음 정악보」 (서울: 은하출판사, 1983).





### 〈비교악보 1〉

아악부 악보  
〈악보 18-28〉



⇒

현행 악보  
〈악보 2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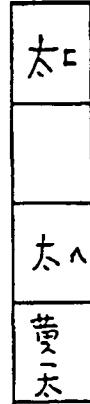
### 〈비교악보 2〉

아악부 악보  
〈악보 18-29〉



⇒

현행 악보  
〈악보 20-37〉



〈비교악보 1〉에서 보듯이 아악부 악보의 첫 칸에 실린 세 음은 현행 악보에서는 부호를 동반한 한 음으로 처리되어 있다. 물론 실제 음은 세 음이 나고 있다.

그러나 공간을 차지한 세 음의 흐름과 꾸밈음처럼 처리한 세 음에는 차이가 있다.

두번째 칸은 더 차이가 있는데, 선을 선이 변화된 것을 엿볼 수 있다. 현행 악보의 두번째 칸은 완전히 한 정간의 면적을 갖게 분할하여 표시함으로써 정확도를 기할지는 모르지만 한 공간의 음의 흐름의 길이에 있어 그 융통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마치 그림에 있어 바닥색으로 짙 메워버린 동양화의 여백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비교악보 2〉

첫째 칸과 셋째 칸의 경우는 장식음처럼 부호로 처리되어 있다.

넷째 칸의 두 음의 경우 현행 악보의 1칸의 공간면적을 3등분하고 길고 짧은 음을 도식화시켰다. 정확도를 기할 수 있지만 한 공간사용의 융통성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 〈비교악보 3〉

첫 칸의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음을 나누어 기보한 것을 현행 악보에서는 두 음을 꾸밈음과 짧은 음으로 기보하고 두 음 중 하나는 더 길고, 하는 3분의 1음

〈비교악보 3〉

〈비교악보 4〉

아악부 악보  
〈악보 18-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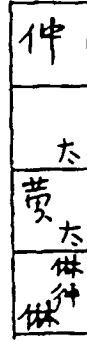
현행 악보  
〈악보 20-㉔〉

아악부 악보  
〈악보 18-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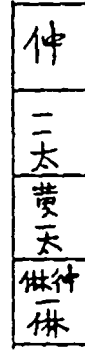
현행 악보  
〈악보 20-㉖〉



⇒



⇒



시가로 기보하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이며 정확한 길이를 나타내어주나, 어느 면에서는 아악부 악보에서 제시한 기보보다는 네 음의 자유로운 분할은 불가능할 것이다.

네번째 칸과 여섯번째 칸의 음들이 현행 악보에서는 다른 시가들의 음들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기보법의 체계는 철저히 한 공간의 면적을 분할하여 표기하는데 그 한계를 두기 때문이다.

〈비교악보 4〉

두번째 칸과 세번째 칸의 경우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네번째 칸의 음들의 기보체계는 완전히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현행 악보의 음의 진행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아래로 하고 있다. 아악부의 악보의 경우는 전통기보법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의 음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악보의 기보체계로 고악보들의 악곡들을 해독하기 어렵다고 본다.

위와 같이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의 기보체제는 그 이전의 고악보 기보체제를 따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즉, 서양의 문자 표기법이 들어오는 시점하고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본다.

더 더욱 해방이후 글자 쓰기법이 가로쓰기법(좌→우)으로 바뀌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악보의 기보체제에 있어서 행 긋는 법이나 간 나누는 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나 한 정간 안에서는 어느새 가로쓰기체제로 바뀌며, 서양음악 리듬분할론이 면적을 등분할하여 나타내는 정간보의 기보체제로 유입되면서 한 공간 안에서 등분할할 수 없는 우리의 음악특징까지도 서양음악적(?) 등분할 체계가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IV. 맺음말

우리나라 문자 쓰기법에 있어서 전통적인 쓰기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쓰는 세로쓰기법을 써왔으며, 행을 이루어 나갈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기보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자기보체제는 그 당시의 악보의 문자 기보체제와 같은 원리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많은 서양 문물과 지식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자 쓰기법 또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으리라 본다. 1930년대의 음악을 싣고 있는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는 전통기보법 이외의 기보법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악보를 제작한 사람이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음악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30년대 연주되었던 이왕직 아악부의 음악임이 분명하더라도 악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기보체제가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서양식 기보법의 체계(가로쓰기 : 좌→우)와 우리식 기보법 체계(세로쓰기 : 우→좌) 혼용이 이루어지면서 전통기법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글자 쓰기법이 가로쓰기법(좌→우)으로 바뀌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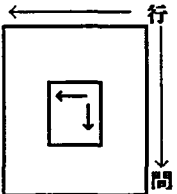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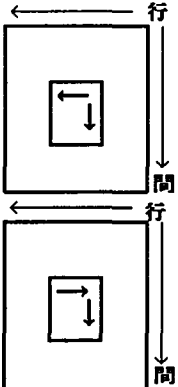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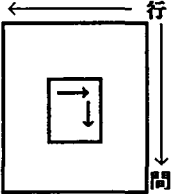
현행 정간보의 악보 기보체제는 흔히 전통기보체제로 소개하고 있으며,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가로쓰기를 하는 학생들에게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보법으로 알려

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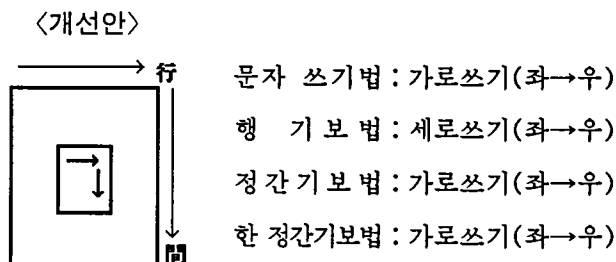
그러나 현행 정간보의 기보체제는 행(行) 긋는 법과 간(間) 나누는 법만 전통적 쓰기법을 따를 뿐, 한 정간 안에서의 쓰기법은 어느새 가로쓰기법(좌→우)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한 정간 안에서의 음의 분할은 글자의 크기나 높이는 위치 등을 감안하여 연주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한 정간 안의 면적을 등분할하는 기보법을 사용함으로써 한 정간(공간)안에서 등분할할 수 없는 우리 음악의 특징까지도 서양음악의 리듬분할론 체계로 자리바꿈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행 정간보의 한 정간 안의 공간을 나누는 (나눔표시: -) 분할론의 기보체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게 현재 사용되는 정간보의 기보체제는 전통의 글자 쓰기법과 같은 원리를 지녔던 기보체제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변화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세종악보~금은금보》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	《현행 정악보》
기 보 체 제			
특 징	문자 쓰기법, 행 간기보법, 한 정간기보법과 원리가 모두 일치한다.	① 전통기보법 ② 문자 쓰기법, 행 간기보법은 세로(우좌), 한 정간기보법은 가로쓰기(좌우)로 불일치 ①과 ②를 혼용	문자 쓰기법: 가로쓰기법(좌우) 행 간기보법: 세로쓰기법(우좌) 한 정간기보법: 가로쓰기법(좌우) 한 정간의 분할을 시도함

현재 우리나라 문자 쓰기법이 가로쓰기법(좌→우)을 채택하여 한 정간 기보방식만 가로쓰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자 쓰기법을 통일시키고 기보방향과 음악의 흐름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보체계를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정간보의 기보체계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결국 정간보라는 기보법의 이해는 글자 쓰기법의 변화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 악보에 전통기보법을 그대로 살려 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현재의 글자 표기법을 감안하여 정간보의 기보체계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간보의 장점인 음의 시가량을 면적의 공간량으로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한 정간의 공간을 등시가로 구획하는 분할론의 기보법 체계는 서양음악의 리듬분할론 체계로 바뀌는 모순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1930년대 음악을 실었던 악보에서 볼 수 없었던 한 정간의 공간분할 기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악곡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르의 우리 음악은 서양 기보법을 빌어다 썼다. 서양음악과 다른 우리 음악은 서양 기보법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을 여러 가지 보조 기호를 만들어 서양기보법으로 써왔다. 이런 과정에서 장단도 왜곡되며, 시김새의 표현 등은 없어지거나 특정음화되어버려 실제 원곡과는 다른 곡으로 변화되었다.

우리 나라 음악을 위하여 만들어진 많은 기보법을 두고 우리 나라 음악에 다른 문화권의 기보법을 쓴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며,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도 전통적인 기보법의 체계를 확립하여 전통에 뿌리를 둔 기보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논 문〉

이보형, “한국 민속음악장단의 대강박, 박, 분박에 대한 전통기보론적 고찰”, 「국악원 논문집」 제4집 (서울:국립국악원, 1992).

\_\_\_\_\_, “전통기보론에서 拍의 集合論과 分割論의 合理性과 效用性”, 「민족음악」 제17집 (서울:서울대학교 부설 동양음악연구소, 1995).

### 〈단행본〉

김기수, 「국악입문」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2).

장사훈, 「최신국악총론」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5).

이성천 외, 「알기쉬운 국악개론」, 국악교육총서 5 (서울:한국국악교육학회, 1990).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대림출판사, 1981).

### 〈악 보〉

김태섭·정재국 편저, 「피리구음 정악보」 (서울:은하출판사, 1983).

「세종·세조실록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0집 (서울:국립국악원, 1986).

「대악후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집 (서울:국립국악원, 1979).

「시용향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2집 (서울:국립국악원, 1987).

「금합자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2집 (서울:국립국악원, 1987).

「양금신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4집 (서울:국립국악원, 1984).

「삼죽금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집 (서울:국립국악원, 1980).

「하버드大 소장 금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7집 (서울:국립국악원, 1985).

「금은금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18집 (서울:국립국악원, 1975).

「국립국악원 소장 아악부 악보」, 한국음악학 자료총서 제25집 (서울:국립국악원, 1988).